

브라질, 플렉스자동차 점유율 확대

2006년 상반기 62만2000대 ... 국제유가 급등으로 133% 늘어 인기

브라질의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가솔린과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 차량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.

브라질 자동차생산협회(Anfavea)에 따르면, 2006년 상반기 브라질에서 판매된 플렉스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76.3%를 차지하는 62만2200대에 달하면서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판매량은 2005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133% 늘어난 것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의 플렉스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.

이에 앞서 Volkswagen 브라질 법인이 6월부터 전체 생산 차종을 플렉스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 브라질 내 자동차 업계가 일제히 플렉스 차량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자동차 판매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.

한 시장 관계자는 “6월 한달에만 플렉스 차량의 판매 비중이 77.1%를 차지하는 등 플렉스 차량이 자동차 판매시장을 압도하고 있으며, 연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브라질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, 플렉스 차량 생산은 2003년부터 시작했다. (상파울루=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7/11>